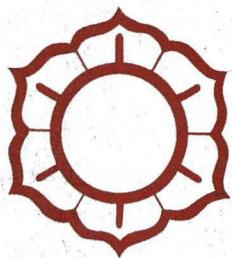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훔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발행인 : 법공 편집인 : 황의수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2003년
2월 1일
토요일
제41호

이 달의 종조법설
진리란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마음
을 익히면 곧 진리를 깨친 것이다.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다시 및 일체 사람을 알려고 그럴
것인가. 다른 이의 마음을 찾고 알려고 하기 이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알아야 한다.

신년하례법회 전국 스승님 힘찬 출발 다짐

종령 법어 “화합과 협동을 제일 원칙으로 삼을 것을 당부”

하정 종사 퇴임식도 함께…종단 발전과 중생교화의 대 사명 잊지 않고 용맹정진 다짐



록정 종령은 법어를 통해 “올 한해는
화합과 협조단결로 종단의 새로운 기운
을 드높이자”며 “특히 화합을 저해하는
비방하는 말, 꾸민 말, 나의 허물을 보
지 않고 남의 허물을 말하는 혐답을 줄
이고 새해에는 기쁜말, 좋은말, 선한마

음이 가득한 한해를 만들자”는 법어를
내렸다. 또한 법공 통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 대 서원불공을 원만하게 회
향하였습니다. 새해 불공에 각자 세웠던
발심을 끝까지 잊지 말고 수행자의 자
세를 잊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신년하례법회를 마치고 법성사 주교
하정종사의 퇴임식을 가졌다.

하정 종사는 퇴임사에서 “30여년 동
안 교화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

님의 보살핌과 가지력이 있었으며 또한
원로스승과 동료 후배들의 사랑과 도움
으로 큰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다”며
“퇴임은 마침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
작과 출발이며 앞으로 기로스승으로서
품위와 승직자로서의 덕행을 더욱 같고
닦아 모범되는 선배스승으로 거듭나가
겠다”고 퇴임사를 하였다.

이날 하례법회와 하정 종사 퇴임식을
마치고 각 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
하였다. 또한 13대 집행부 구성을 하여
총무부장 인천 시법사 주교 지성 정사,
재무부장 덕화사 주교 대원 정사 교정
부장 총지사 주교 법등 정사를 각각 선
출하였다.

「종조전」건립, 연내 마무리 될 전망

종조탄신 97주년 기념사업 일환…

종조님 진영 봉안, 유품 · 자료 전시 계획

지난 1월 16일, 관련 2개 분과위원회에서 설계 검토

종조 원정 대성사의 탄신을 봉축하는
법회가 지난 1월 29일, 전국 사원에서
스승님과 교도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엄
숙히 봉행되었다.

이번 종조탄신일은 종단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종조전건립이 연
내에 마무리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종
단은 이번 종조탄신97주년의 기념사업
으로 지난해부터 착수했던 ‘종조전 건
립불사’를 완전히 마무리 하기로 하고
앞으로 종조련 모든 행사를 종조전에
서 봉행하기로 하였다.

통리원(원장 법공 대정사)은 종조탄
신일을 앞두고 지난 1월 16일 ‘종조전
건립위원회’와 ‘전당건설위원회’를 소
집, 종조전 건립에 대한 설계를 심의하

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소집된 상기
의 2개분과위원회는 1월 16일부터 17일
에 열린 종단분과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기준에 하나로 개최되었는데, 이날 회의
에서 설계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다음
회의에서 입찰을 통해 업자를 선정키로
결의하였다.

종조전건립은 종단적으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지난 1월 21일, 종령 록정
대종사의 대답에서 밝히신 대로 ‘종조
님의 공력을 친양하고 그 뜻을 기리고
자 하는 목적이 있고, 무엇보다 그분
의 위대한 가르침을 계승하는 데에 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종조전 건립에 대해 록정 대종사께서
는 “법제자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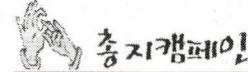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후대들이
종조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정신을 잊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
의 행적을 길이 후대에 물려주고 널리
알려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종조전을
단순히 짓는 것만으로서 그치지 않고
종조님의 정신과 수행실천을 배우고 따
르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종조님의 유
품을 정리하고 전시하여 후대들에게
창종 당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중생
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습니다. 종조전이 연내에 건립되
면 종조탄신일 · 명도절 · 성도절 · 창교
절 등의 종단 주요불사를 종조전에서
여법하게 올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규
스승교육이나 종무원교육에서 종조전
참배를 의무화하고 교도들이 자유롭게
언제나 항상 자유롭게 참배할 수 있도록
개방할 생각입니다. 종조전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도 둘 생각”이라
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관련인터뷰 4면〉 〈관련특집기사 5면〉

상 종무행정과 사원운영 능력 배양, 교
화 방편과 포교방법 체득, 자질함양의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교육계획
을 밝혔다.

이번 신규스승후보자들의 학력은 박
사학위 취득자에서부터 고졸의 출신까
지 다양하며, 서울경인교구 4명, 부산경
남교구 2명, 대구경북교구 2명, 충청전
라교구 2명이다. 연령은 40세 초반에서
50세 초까지 나타나 평균 대학원출신의
40대 중반으로 나타나 젊은 승승이 탄
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스승 후보자들은 다음과 같다.



나누며 사는 세상

얼마전 국민가수 조용필씨의 부인이 심장마
비로 사망했다는 뉴스와 함께 조용필씨에게 막
대한 유산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
나 조용필씨는 수십억이나 되는 그 돈을 전부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 쓰겠다고 발표했다.

원래 아내의 유서에는 남편의 음악을 위해
유산을 남긴다고 했는데 남편은 다시 심장병
때문에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 그 돈을 전부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다. 참
아름다운 부부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이 가진 것을 여러 사람과 많이 나눌수
록 우리사회는 밝고 맑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집착과 재물욕은 그 어
떤 본능보다 강하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
들의 교리를 보면 욕심을 버리고 나누며 사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화엄경에 제어(制御)하기 어려운 인색한 마
음을 제어하여 재물을 풀려 끔과 같이 하고 뜬
구름같이 집착 없이 해야 지혜가 완성된다고
불교에서도 나누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
서는 재물을 나누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누는 것이 꼭 재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없다고 나눌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시간을
그들과 나누어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문제는 내 스스로 나누고자 하는 의지이
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혹은 후원
금 등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한
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나누고 사는 것
이 인색하다.

통계적으로도 미국은 국민 한사람이 일년에
내는 후원금이 70여만이고 영국은 40여만원, 일
본은 25만원 정도인데 우리나라에는 5천8백원 정
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사회제도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많지만 무었보다 우리불자들이 나누며 사
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부
처님이 자비를 실천하는데 같이 나눌 수 있는
보시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
다.

서울경인교구 이중석(46세), 김홍배(41세), 황보상민
(46세), 이희자(46세), 부산경남교구 장선옥(43세), 박
인관(53세), 대구경북교구 최명현(48세), 곽노주(48세),
충청전라교구 유성형(47세), 이옥진(44세)

불교총지종 신규 예비스승 10명 자격심사 통과 진언수행자로 중생교화 홍법포교의 큰 발심 일으켜

지난 1월 22일 불교총지종 신규 스승
대상자 가운데 인사위원회의 엄격한 심
사를 거쳐 10명이 선출되었다. 이들은 2
월 11일부터 2개월간 교육을 통해 스승
의 사명, 총지종 교상과 사상, 밀교사상
과 수행체계, 계율등 총 11개 분야에 걸
쳐 강도 높은 교육이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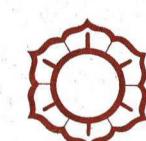
법공통리원장은 “이번 신규스승은 과
거와 달리 스승의 자질함양을 위해 철
저한 계율, 스승으로써 품성을 중점적으
로 교육을 시킬 것이며, 특히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총지종의 교리와 수
행방법체득, 교회에 임하는 자세와 스승
의 사명감 고취, 승직자로서의 자질함

양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종령 통리원장
록정 법공
총장
중앙종의회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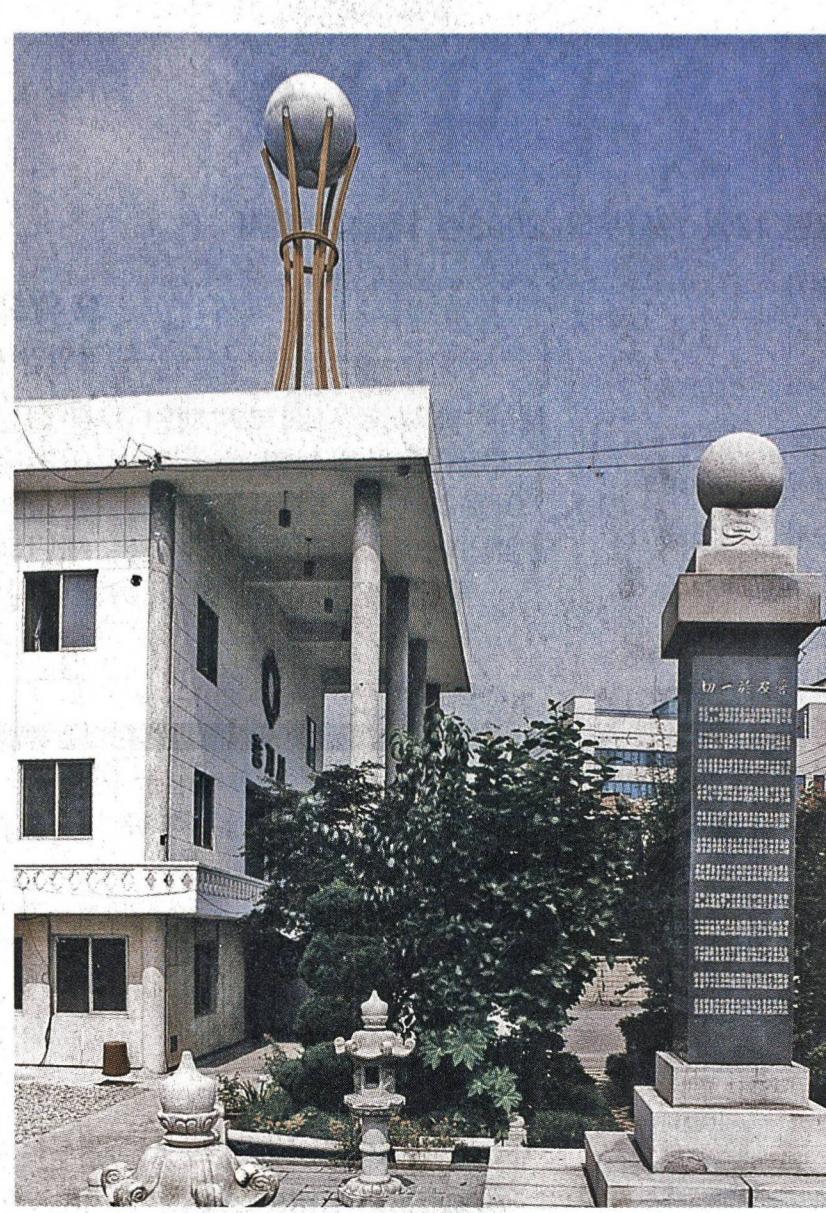
총무부장 지성
재무부장 대원
교정부장 법등

서울경인교구장 해정
충청전라교구장 법수원
대구경북교구장 우승
부산경남교구장 정정식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교도가정에 바로자나 부처님의 가지원력이 충만하길 빕니다.
종조님이 세운 정통밀교의 큰 뜻을 톤튼히 세우기 위해 승단은 진언수행에 흐트러짐 없이 용맹정진
하겠습니다.



사설

신규스승 교육에 불여

이번 달 11일부터 신규스승양성을 위한 사무교육이 시작된다. 그동안 수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10명의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이번 교육은 그동안의 졸속교육에 대한 병폐를 시정하고 6개월에 걸친 집중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들에 대해서는 스승임명 후에도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밀교아사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본종의 스승교육은 인원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평소의 수행능력에만 치중하여 스승을 선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폐지 못한 감이 있었다. 일반인의 입교를 유도하고 입교하는 교도를 단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승 자신의 수행력 이외에도 이들을 체계적으로 어려 충실했던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통리원 및 인사위원회에서 스승 선발 과정에 서부터 엄격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선발한 것은 다행한 일이며 이에 맞추어 체계적인 교육을 시도한 것은 앞으로의 종단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그동안 스승양성 교육의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수정, 보완하고 수행력 이외에도 체계적인 불교교리를 교육시켜 사회 일반인이 쉽게 불교에 접근하고 또 밀교의 수승한 교리도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승의 자질 향상을 현저하게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스승은 종단 발전의 일자리 책임자이며 일선교화의 최전방에서 교세 확장에 기여한다는 점을 상기하면 스승교육 자체가 곧 인재 양성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스승교육은 종단 여건이 허락되는 한 교육 기간을 충분하게 설정하고 훌륭한 교사를 배치하여 불교교리와 수행, 포교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후원하기 위한 전 종단 차원의 관심과 배려가 요망된다. 또한 스승 선발 기준도 능력과 자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방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지원자의 문호는 개방화되며 심사는 엄격하게 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발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스승에 대한 보수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스승 자질 향상이 종단 발전에 직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의 확립이 시급하다

본종의 창종년월이 어느덧 세월을 더해 금년으로 총기 32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원종종조에서 정통밀교의 중흥을 기치로 내걸고 준제법으로써 교회의 첫발을 내디디신 이후 세수(歲數)를 다하시고 개산 7년여만에 입적하시므로써 그 발전의 속도가 급격히 완만해졌다. 여기에 더하여 원정종조께서 물꼬를 트신 정통밀교의 기틀이 채 갖추어지기도 전에 그 가르침이 단절되었으므로 교상과 사상의 큰 틀은 마련되었으나 세부적인 연구가 충분히 뒤따르지 않아 많은 부분에서 혼선을 가져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본종이 사립으로 치면 30세의 어엿한 장년으로 성장한 이상 종단 발전의 핵심이요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교상과 사상에 대한 확립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교상과 사상을 다시 정립함으로써 정통밀교 종단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드높이고 교세를 확장하여 이 땅의 무명종생에게 밀교의 수승한 가르침을 넓고 빠르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교상과 사상의 확립의 선결 조건으로서 먼저 본종의 교주인 비로자나불에 대한 해석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수행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준제법을 수행과 교화의 근간으로 삼되 그 근본은 비로자나불에 두고 삼보에 대한 귀의와 이에 대한 수행법이 부가됨으로서 비로자나불과 관세음보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연구는 법장원과 관련 위원회의 소관일 것이다. 비로자나불 중심의 교상과 사상의 확립은 기본불교의 성향을 탈피하여 즉신성불에 이르도록 하는 첨경임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역삼노인복지센터 3년간 재 위탁

주간보호센터 황진수 과장 서울시장 표창 수상

강남구청은 지난 11월 28일 복지센터 재 위탁 선정 심사를 하여 향후 3년간 복지센터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에 재 위탁키로 결정하였다.

재 위탁 심사는 위탁 운영 3년 동안의 복지시설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재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재 위탁 선정으로 보다 발전적인 복지센터 운영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2월 30일 복지센터 황진수 과장이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

하였다. 서울시는 2002년 3월 시청, 구청, 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평가반을 조직하여 서울시 소재 전체 재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64개소의 시설 중 16개소가 1등급에 선정되었으며, 그 중 역삼복지센터를 포함한 최우수 9개 시설 담당직원에 대하여 서울시장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번에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한 황진수 과장은 지난 199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주간보호센터 담당 과장으로서 치매, 종종 어르신을 모시에

있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은 물론 가족들과 프로그램 진행 자원봉사자들한테도 모범이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타 주간보호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어르신들의 교류 및 연합행사를 주관하는 등 진정한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정스승님 퇴임 지난 1월 16일 부산 법성사 주교 하정스승님 퇴임식이 있었다. 여러 스승님과 교도들은 하정스승님의 퇴임식을 아쉬운 마음에 지켜보았다.

영원한 진인 염송자, 밀교수행자로 하정스승님은 기억될 것이다.



지난 1월 6일부터 시작된 신년불공에 전국스승님과 교도들이 사분정진에 들어갔다. 사분정진은 새벽·오전·오후·저녁 네번에 나누어 용맹정진을 하는데 불교총지종은 매년 새해 1주일간 사분정진 불공을 하는 전통이다.

올해는 전국 사원에서 약 1,000여명의 교도들이 불공을 헌신했다. 특히 신년 새해 불공 마지막 날에는 7정진을 하는데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용맹정진 속에 헌해를 설계하고 모든 재난을 막는 불공을 하였다.

사진은 총지사 교도들 약 100여명이 모여 7정진을 수행하는 모습이다.

법장원 연구원

논문 개요

이중석 박사학위 취득



본 종단 법장원 연구원 이중석 (화령)씨가 지난 2002년 가을학기에 '밀교비로자나불의 연구'

'지도 교수 서운길 박사'란 논문에 통과하여 동국대학교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밀교비로자나불의 연구'는 법신불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비로자나불을 밀교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으로 화엄의 비로자나불의 등장 배경과 밀교의 비로자나불이 대일여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들을 고찰하였다. 특히 밀교에서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하는 즉신성불의 이론과 실천체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중석 연구원은 불교총지종 종비생 출신으로 진연수행생활과 학업 생활을 병행하여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중석 연구원은 "최초로 밀교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밀교의 비로자나불은 한 마디로 불교의 근본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법신으로서 우리에게 성불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법신불의 변천과 그것을 둘러싼 사상적 배경을 구명하고 비로자나불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김으로써 성불에 이르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실천체계를 드러낸다. 그리고 화엄의 비로자나불의 등장 배경과 밀교의 비로자나불인 대일여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들을 고찰하였다.

특히 밀교에서의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하는 즉신성불의 이론과 실천체계에 대해 계통을 세우고 만다라와 비로자나불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삼았다.

이 논문은 밀교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관념론에 가까웠던 법신비로자나불을 밀교의 등장 이후 어떻게 이를 수행자의 인식 범위 안으로 끌어내려 수행자 자신과 법신비로자나불을 동일시하는 차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을 밝혔으며

실상자신(實相智身)과 변화법신(變化法身)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불보살과 명왕, 천 등의 계통을 확립하고, 여기에 더하여 등류법신(等流法身)이라는 개념으로까지 법신의 개념을 확대하여 수행자와 법신의 일치를 시도한 밀교의 핵심교리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비로자나불의 세계가 다름 아닌 "如實知自心"에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확립하고, 자심을 여실히 깨닫는 방편으로서 아자관(阿字觀), 오자임신관(五字眞身觀), 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 등 밀교 독자적인 수행체계를 보여줌으로써 삼밀행과 만다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체적인 실천체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밀교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은 이 논문이 최초로서 논지는 밀교의 비로자나불은 한 마디로 불교의 근본

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법신으로서 우리에게 성불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논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법신불의 변천과 그것을 둘러싼 사상적 배경을 구명하고 비로자나불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김으로써 성불에 이르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실천체계를 드러낸다. 그리고 화엄의 비로자나불의 등장 배경과 밀교의 비로자나불인 대일여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들을 고찰하였다.

李重碩 약력
佛名: 華靈
1958년 경북 영일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주)뉴스컴 대표이사 역임
불교총지종 법장원연구원
동국대학교 역경원 역경위원
동국대학교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 수료
동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철학박사)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02년 12월 18일부터 2003년 1월 17일까지

개천사

총지 논단

이원진리(二元眞理) ④

본 글은 종조 원정 성사께서 서적 간행을 위해 친히 쓴 원고의 일부입니다. 원정 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구절절 일체종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밀교의 종통을 창종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충인직에 계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고(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충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아우르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편집자주)

는 기계 힘으로 행하는 물도(物道)가 있고 사람의 힘으로 행하는 인도(人道)로 나누어져 있는 데도 더욱 물질이 변화한 곳에는 좌우측에 인도가 있고 그 가운데 오로지 물(物)이 왕래하는 큰 길이 나누어져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좌측으로 행하고 물(物)은 우측으로 행하여야만 되는 교통 도덕에 이르기 까지 법이 되어 있어 공도(公道)를 아니 할 수 없는 이원시대에는 만사만리가 다 이원법칙에 따라 발달하게 된다. 물(物)을 발달하는 공도는 커서 과거 조상으로부터 세워온 중도(中道)를 새로 건설하는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주관아 되어 세계적 종교의 상대원리 속에서 발전하게 된다. 과거 유교 전제 밑에 살았던 민족은 진리불교가 아니면 자유와 평등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실리(實理)는 분파적으로 발달해도 일원정신이 서 있고 진리(眞理)는 전문적으로 발달하되 이원진리가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과학이다. 면 다 분파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중생의 행복에 필요한 종교라면 다 종파적으로 발달하게 되어 세상에는 없는 것이 없이 물심이원(物心二元)으로 발달하는 세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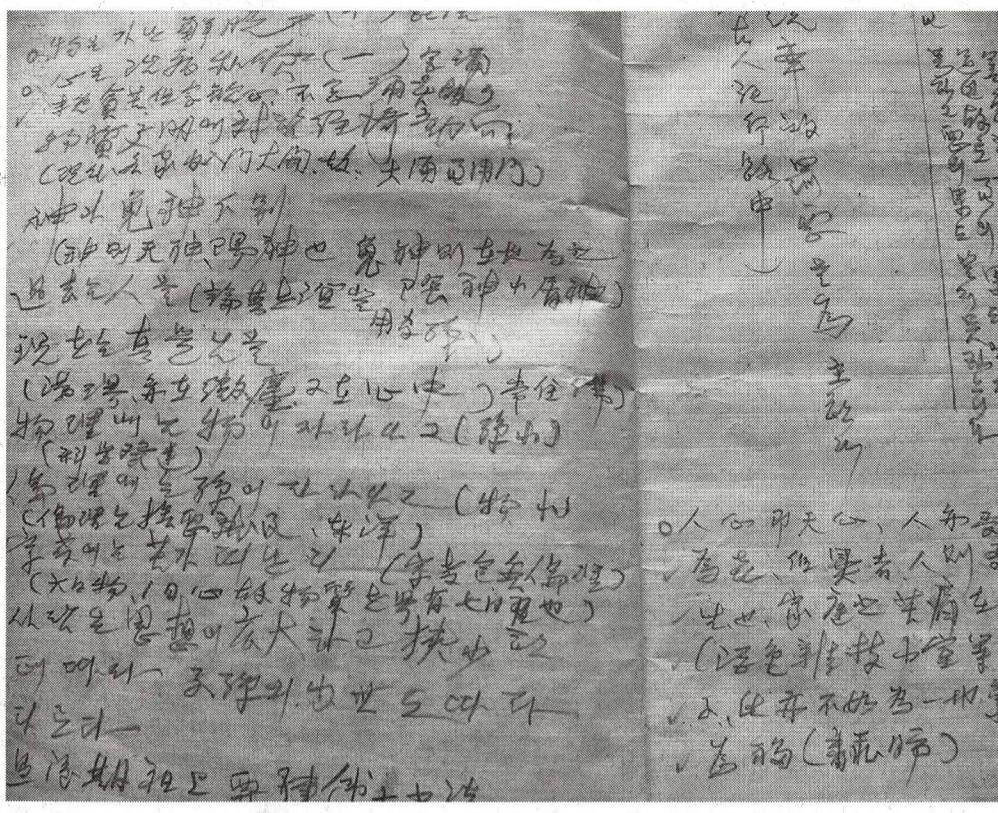
공도적인 물도세계(物道世界)가 서게 되므로 과학이 발달해서 물질이 풍부하며 문명의 생활을 하게 되고 종교가 발전해서 인성적으로 선량하고 육행(六行)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고 민사만물이 본래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냇고 과학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서 세운 것이므로 구름에 가리운 해와 같은 우리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종교도 역시 과학이 분파로 발전하는 날에는 현 사회상 그대로 진(眞)과 실(實)이 각각 사명을 이루어 문화세계를 건설하는 도구가 될 것이요 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인불교(心印佛教)의 원리가 곧 이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이 모두 과학은 자유로 발전하는 데에 열을 내고 있으나 종교는 아직 자유발전이 적은 오늘날의 사회현

상을 보면 악(惡)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진실한 이원종교가 서게 되는 날에는 오늘날 악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다 지상극력을 건설하는 이 국토에 장엄소속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발전과 과학발달이 상대로 발전되는 사회의 그 현상은 악이라고 이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과거 조상으로부터 세워온 중도(中道)를 새로 건설하는 불교는 우리에게는 주관아 되어 세계적 종교의 상대원리 속에서 발전하게 된다. 과거 유교 전제 밑에 살았던 민족은 진리불교가 아니면 자유와 평등을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전해오는 유교 도덕은 보이지 않는 토대(육행)



원정 대성사님의 친필 원고. 종조님은 「법불교」 「웅화성전」 「총지법장」 등 정통밀교 종단의 교상과 사상을 정립하였다.

세계는 物心二元으로 발달

실천)로 만들고 진리의 불교로 바꾸어서 지어가는 것은 20세기 조류와 보조에 꼭 맞아지는 깨달이다. 이와같은 혁신적인 진리불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은 이교(異教)의 교리를 보고 듣고 믿어보아도 풍토성과 현지성에 맞지 않는 이가 많아서 신앙에 주저하고 방황하고 타락되어 고유성에 맞는 선교(宣教)를 희망하고 있는 이가 많고만 할 것이다. 아니라 이 때에는 교(教)를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교(教)를 믿지 않는 국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불교계에서 책임을 마땅히 져야만

할 것이다.

수백년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풍토성과 혈지성과 고유성과 본말선 후체(體) 용(用)을 알아서 바꾸지 않고 다원시대의 주의 하나님 알아서 우리의 근본을 일조일석에 거역히 버리고 다르게 교화하는 것은 빼어나서 없는 곱주를 곧 바루고자 하는 것과 다름 없을 것이다.

일원(一元)으로서는 이 틀을 바루게 되는 통치의 힘이 되고 이원(二元)으로서도 독재를 바루게 되는 평등의 힘이 된다.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있어서

서 밝게 되고 양(陽)은 음(陰)이 있어서 항구하게 되는 법이다.

일원(一元)은 이원(二元)을 상대(相對)하고 이원(二元)은 다원(多元)을 상대하고 다원(多元)은 일원(一元)을 상대해서 가장 높고 큰 자유로 발달하고 장원(長遠)하게 되는 법이다.

일원시대에는 이와 흡사한 적은 법을 쓰되 자체안에서 부분을 나누고 보니 지배하게 되므로 적은 범위로 발달하는 법이요, 이원시대는 이와 같은 상대방법을 쓰게 되어 광대한 범위로 발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과 같이 종파를 나누고 보니

자유로 크게 발달하는 법으로 되는 것만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족이 다 종교를 믿어야 할 때는 여러 종파가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다. 한 민족 가운데라도 종지(宗旨)가 달라지므로 해서 모두 각각이 여러 가지를 믿을 수가 있게 된다.

율법과 진리, 유상(有相)과 무상(無相), 사판(事判)과 이판(理判) 같은 각각의 종지를 주로해서 대립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최고로 발달하는 법이 될 것이요, 또 종파로 발전하는 것은 그 교의 전체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므로 쉽게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습관된 행사(行事)는 하루에도 없을 수 있거나 여러 해 동안에 습관된 행사는 하루나 이틀에는 고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십년에 습관된 행사는 그만한 세월을 요하게 되므로 이런 것을 체(體)로 하고 새것을 세워서 고쳐야 하며 어려서부터 익힌 행사를 고치는 데는 그와 같은 시일(時日)과 이원(二元)을 요하게 될 것이며 조상으로부터 수천년 동안 세워 오던 일원중도(一元中道)를 토대로하고 이원공도(二元公道)를 새로 건설하는 데 장원(長遠)한 역사가 수천년동안 요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보는 지혜가 있어야 오늘날부터 우리 민족과 혈연성에 맞는 자유국가로 혁신되어 행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가령 이원공도(二元公道)를 세우는 역사가 반비례로 수천년을 필요로 한다면 수천년 동안에 고통 받고, 수천년 혁신한 후에는 이원공도(二元公道)의 행복을 받아 점점 공도(公道)가 높고 큼에 따라 행복도 점점 크게 받게 될 것이다. 즉 수미산 같은 일원실상(一元實相)은 그대로 두고 이원진리(二元眞理)를 새로 크게 세워 가는 것이 반비례의 이원(二元)인 것인なり.

생활속의 밀교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큰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지난호에서 십선회향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번 호에는 십선 가운데 '불망어'(不妄語)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한다. 왜 '불망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망어(妄語)는 불제자가 짓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요, 일반적으로 쉽게 짓게 되는 악업이기 때문이다.

불가(佛家)에서는 이를 일러 '바라이좌'

라고 한다. 바라이란 극악(極惡)·단두(斷頭)를 뜻하는 것으로, 계율 가운데 가장 엄히 다스리는 죄이다. 그 중죄(重罪)란 바로 살생·투도·사음·망어이다. 이를 사바리(四波羅夷)라 한다. 사바리이를 범하면, 불제자로서 자격을 잃는 것이요 참회해도 소용없고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불제자 입장에서 살생투도·사음의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저어가 되겠지만, 유독 '망어'는 쉽게 저어되지 않는다. 출가자는 재가자든 유무식을 떠나서 부지불식간에 내뱉게 되는 것이 망어(妄語)인 것이다.

망어를 하자는 것이 부망이어서. 불망어는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요 막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막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날카로운 마음을 조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일경』과 『금강정경』은 '진실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진실로 행하는 말이 바로 진실이며, 불망어인 것이다. 그래서 경전은 '성실어(誠實語)', 진실어(眞實語), 진언(眞言)이라 말하고 있다. 진실어(眞實語)가 바로 불망어(不忘語)인 것이다.

그 진실어는 우리 밀교진언행자가 행하는 의궤 속의 '진언(眞言)'이기도 하고, 일상에서의 부드러운 말, 거짓되지 않는 말, 삿되지 않는 말, 험담, 이간양설, 중상 모략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참 진언(眞言)이라고 하겠다. 거짓된 언행으로 무지(無知)의 중생들을 현혹케 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삿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은 망어의 바라이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항상 진심(眞心)에서 우러 나오는 말로써 상대방을 존대하며, 말 아닌 말은 삼가하고, 할말은 아껴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장원 연구원 법경〉

은 7.5시간인데 9시간을 자야하는 사람과 6시간간 자도 되는 사람은 생물시계의 밤낮 구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생물학적인 '밤'에는 흐르는 분비량, 체온 등이 변하면서 생리체계가 휴식과 수면 상태로 들어가지만 사람에 따라 '밤'의 주기가 길거나 짧은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애시마호 박사는 하루 9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수면시간이 6시간이 못되는 사람들을 40시간 계속 자지 못하게 해 똑같은 조건에서 흐르는 분비량, 체온, 졸음 정도 등을 측정한 결과 오래 자는 사람은 짧게 지내는 사람보다 생물학적인 '밤'이 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고 이는 사람에 따라 생물시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기증!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장기기증 신청 방법

- 1) 02)734-8050으로 전화상담→신청서류접수→등록
- 2) www.lisa.or.kr 접속→인터넷등록
- 3) 종로구 견지동 74-8 사무실 직접 방문→상담 및 등록

생전 골수기증

골수 기증은 백혈병이나 골수이식이 필요한 각종 암환자에게 새생명을 주는 고귀한 나눔의 골수기증은 만 35세 이하인 분으로 건강한 분이어야 하며, 현혈을 한 번 정도 경험해야 합니다. 골수기증은 골반뼈에서 골수액을 체취하며, 약 2일 정도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생전 신장기증

우리 주변에는 만성신부전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신장 2개 중 하나를 희자에게 기증하는 것입니다. 신장기증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신체 조직이 일치해야 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환자 지원 및 후원 접수

생명 나눔실천회는 접수된 후원금을 백혈병이나 신부전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소판 혈액과 혈액증도 함께 지원합니다. 아울러 생명나눔실천회가 주최가 되는 각종 캠페인과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지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과 지원봉사는 삶과 생명 나누기의 철학입니다.



뇌사시 장기기증

뇌사 상태에 처한 사람의 장기(심장, 신장, 간장, 폐장, 각막 등)를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사상태는 자발호흡이 불가능하고 소생기능성이 전혀 없거나 상태입니다. 흔히 훈동하는 식물인간과는 다릅니다. 뇌사판정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3인 이상의 전문의가 판단합니다. 뇌사자 본인이 생전 장기기증을 서약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동의할 시에 병원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집니다.

사후 각막기증

각막 기증이라 주로 시신경 기능을 살아있으나 각막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자에게 시술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망한지 6시간이 안된 시신의 각막을 적출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이식하면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각막기증은 색맹, 근시, 난시 외 상관이 없으며 80세까지도 가능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후 6시간이내에 빠른 연락을 해야만 각막이식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사후 시신기증

현재 의과대학에서는 해부용 시신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 시신기증이란 의학 발전을 위해 죽은 후 자신의 몸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것입니다. 의학 발전은 병마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롭게 해 줍니다. 즉, 사후 시신기증은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커다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후원금 접수 방법

■ 예금주 : 생명나눔

* 자동이체를 하시면 편리합니다.

*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 006-01-0770-038

• 신한은행 : 324-05-007605

• 농협 : 053-17-001346

• 우체국 : 010-579-0057699-11

• 흰빛은행 : 010-073780-13-101

• 조흥은행 : 390-03-004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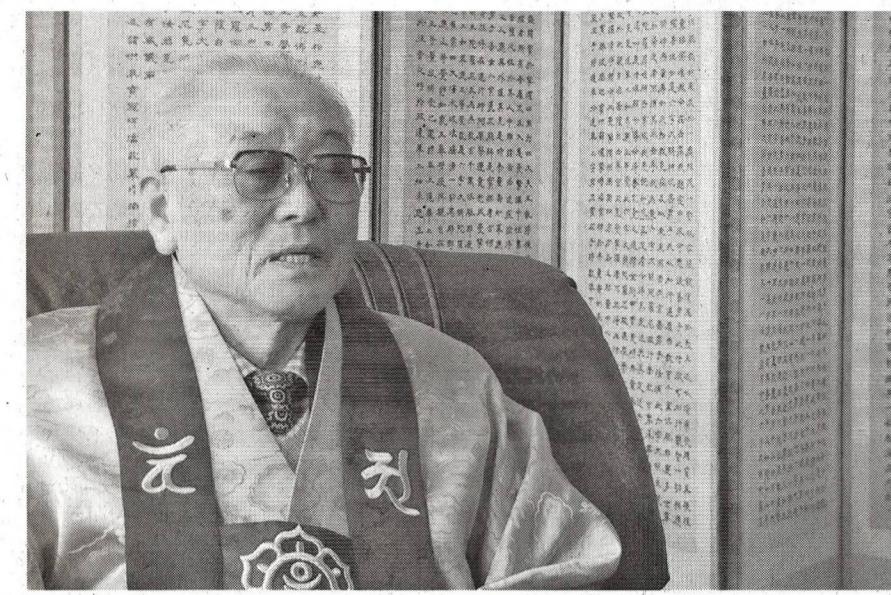
• 흰빛은행 : 02-037428-01-016

• 지로번호 : 7623587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은 꼭 필요할 곳에서 값지게 쓰입니다.

02)734-8050

종조탄신97주년 기념 특별대담



▶ 대답자: 요즈음 건강은 어떠신지요?

- 록정 대종사님 : 매일 진언협송으로 일과를 보내는 데는 먹는 분이 몸이 가볍고 기분이 상쾌합니다.

▶ 대답자: 요즈음 가장 마음쓰고 있는 문제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대종사님 : 종단의 교회발전을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종단 전체가 화합과 협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뜻이 좋았어도 종단 구성원 모두가 환희심을 내고 뜻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합이 되었을 때 종무에 있어서 협동심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서로 듣는 마음이 없으면 어느 것 하나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단이 발전해 나가는 데에는 첫째로 화합과 협동입니다.

▶ 대답자: 올해로서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탄생하신지 9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록정 종령님께서는 청종 당시부터 원정 대성사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을텐데요. 원정 대성사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 대종사님 : 종조님의 혜안과 지혜는 누구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바탕은 결국 수행정진에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들은 쉽게 지나치는 일이나 물건 같은 것도 예사롭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기력이 아주 뛰어나셨고, 퀘어는 통찰력과 예지력이 대단하셨던 분이었고, 참으로 자상하고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가식이 전혀 없는 참으로 수행자다운 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단의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을 세워나가실 때에는 직접 몸소 정진과 체득의 결과로써 정립해나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종조님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염송정진을 하고 결과를 보며 판단하셨습니다. 사안에 따라 한 달 또는 49일, 길게는 6개월의 수행정진을 하고 결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어쩌면 총지종을 세우고자 이 세상에 나신 분이고 일생을 종단을 위해 살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 대답자: 청종 이후 원정 대성사께서는 종단을 반복 위에 올려 놓으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상과 사상적인 측면을 정립하고 체계화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십시오.

- 대종사님 : 청종 전의 우리나라 불교계는 밀교에 대해서 잘 몰랐고, 당시만 해도 밀교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인 '옴마니반메훔'을 뿌리 내리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육자진언염송법을 의례에

“종령 록정 대종사께 듣는다”

제자와 교도들이 원정님께 밀교종의 창종을 간곡히 간청하여 창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조님의 뜻에 동조한 많은 스승과 교도들이 원정님의 사상과 교상에 동의하고 육자의궤법과 경전에 근거한 새로운 종단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정님의 수행정진과 스승, 교도들의 지원과 성원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의 교회열기와 수행정진력은 대단하였습니다. 비좁은 서원당이긴 하였지만 앉을 자리가 없었고, 원정 종조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이십리 밖에서도 걸어 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열의와 사명감으로 중생교화에 임했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고생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법을 믿고 종조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뛰어가며 교회할 때였으니까 어려움도 몰랐죠.

▶ 대답자: 대종사님께서 당시 원정 대성사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가르침이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종사님 : 원정님께서 총지종을 창종 하실 때 강조하신 것이 삼밀수행과 육행 실천이었습니다. 이를 수행의 데목으로

님께서는 종조전 건립이 종단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도들에게 종조전이 어떻게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관련불사나 참배계획은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요?

- 대종사님 : 종조님의 공덕을 친양하고 그 뜻을 기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무엇보다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을 계승하는 데에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법제자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후대들이 종조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정신을 잊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행적을 길이 후대에 물려주고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종조전을 단순히 짓는 것만으로서 그치지 않고 종조님의 정신과 수행실천을 배우고 따르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종조님의 유물을 정리하고 전시하여서 후대들에게 창종 당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중생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종조전이 연내에 건립되면 종조탄신일·별도절·성도절·창교절 등의 종단 주요불사를 종조전에서 여백하게 옮길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규스승교육이나 종무원교육시에 종조전 참배를 의무화하고 교도들이 언제나 참배할 수 있도록 개방할

모습을 볼때가 가장 기쁘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파악했던 자가 심성을 바로게 하고 부처님 말씀을 지심으로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는 스승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스승과 교도들에게 특히 강조한 것은 가정화목과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수신제가 (修身齊家) 먼저 되어야 스승은 남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고 교도는 바른 행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과 교도 모두 '내 허물을 고칠 것'을 강조합니다. 내 심성을 바르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불교인고로 진언과 실천으로 진신으로 하면 모든 것들이 이뤄집니다. 실천하고 변함없이 용맹정진하여 퇴전치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답자: 창종 당시 교회하설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대종사님 : 몇 년 전까지는 교회가 잘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퇴전한 것 같습니다. 생활수준이 나이지면서 정신적인 수양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나아진 것 같지만 신행이나 교도수는 뒤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행정신도 많이 퇴색한 것

향상은 물론이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 동안 항상 구호에만 그쳤는데, 이제 간접적인 성과를 위해 한 가지라도 실행하는 종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대답자: 종단발전을 위해서는 여가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종단을 이끌고 갈 인재를 양성하는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종령님께서는 스승 및 종단의 인재양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성방안이 있으시다면?

- 대종사님 : 교회를 해보면 지식이 높다고 교회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있으면서 마음도 잘 유효한 좋은데, 대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선후를 따진다면 먼저 마음의 닦음이 최고이고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은 바른 심성을 함양하는 데 맞춰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스승에 대한 교육과 스승의 재교육이 중요합니다.

▶ 대답자 : 그러나 지금까지는 스승의 재교육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였으며, 특화된 인재양성이나 교육, 교회방편 등이 연구되지 못하였는데 방안이 있으신지요?

- 대종사님 : 현재 여러 각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승단에서는 현재 각 분과 위원회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종정운영에 반영하고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 대답자: 요즈음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살이에 대해서 종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십시오.

- 대종사님 : 과학이 발달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은 반면에 범죄와 불안상태가 깊어졌습니다. 그럴때 일수록 종교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정신과 심성의 계발이 중요합니다. 물질과 정신이 공존하여 발전하는 모습이 바람직합니다. 사회 복지의 모든 문제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허물을 탓하지 말고 내허울의 모습을 바로 보고 고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화합과 단결을 이룰 수 있고, 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대답자: 끝으로, 승단의 스승님들과 교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대종사님 :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단전체는 화합과 협동이 제일 필요합니다. 화합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화합이 우선되어야 단결과 협동심이 일어나고 그 힘으로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승단 스승님들과 교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대답자: 오늘, 장시간 동안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귀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로 스승님들의 증언과 자료발굴을 위해 직접 원로스승님들을 차이별고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 법장원연구원 법경

정리 : 황의수 기자

정통밀교, 최초로 의궤를 갖춘 진언염송

달리 '옴마니반메훔'을 '준제관음보살'의 '준제관음보살'로 명명한 경전의 근거에 의하여 수행하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고만 있었는데, 종조님께서는 「불설대승장엄보왕경」을 소리로 삼아 모든 교리적 근거와 수행체계를 정립해나갔습니다. 이를 수행의 데목으로

맞추어 창안하셨습니다. 즉 '육자의궤법'을 정립하셨던 것입니다. 창종과 더불어 밀교종으로써의 면모에 걸맞게 모든 교상과 사상을 정립해나갔는데, 일일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 염송을 명확한 경전의 근거에 의하여 수행하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고만 있었는데, 종조님께서는 「불설대승장엄보왕경」을 소리로 삼아 모든 교리적 근거와 수행체계를 정립해나갔습니다. 이를 수행의 데목으로

맞추어 창안하셨습니다. 즉 '육자의궤법'

을 정립하셨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고만 있었는데,

종조님께서는 「불설대승장엄보왕경」을 소리로

삼아 모든 교리적 근거와 수행체계를 정립해나갔습니다. 이를 수행의 데목으로

특집 종조탄신 97주년 기념

종조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올해는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탄생하신지 97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밀교종의 창종을 위해 인연으로 나투셨던 것이리라. 탄신97주년을 봉축하며 종조님의 발자취를 찾아 창종이념과 수행정신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대성사의 성은 일직(一直) 손씨(孫氏) 요 속명(俗名)은 정우(禎祐)大鍊)요, 법호(法號)는 원정(圓淨)이라. 석단(釋誕) 2934년(丁未) 1월29일에 경상남도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하셨다. 아버지는 기현(基賢)씨여, 어머니는 재령(載寧) 이근호(李根浩)씨라 어렸을 때부터 비범한 면이 많았다. 대성사는 소시(小時)부터 명리(名利)에 뜻이 없고, 정의감에 투철하였으며 관계(官界)와 교육계(教育界)에 종사하시다가 불경(佛經)에 심취하여 불교 연구에 몰두하였다. 어려운 시대상을 보시고 구국(救國)과 중생제도(衆生濟度)의 뜻을 세우고 호국불교를 통한 교화방편을 주창하였으나 바로 밀교종의 창종이었던 것이다. 대성사께서는 민족상잔의 참화를 보시고 임자년(壬子年, 1972) 1월 1일부터 국가안보와 정법봉득(正法奉得)·입교개종(立教開宗)을 위한 서원으로 100일 정진을 시작하였다. 4월 10일 10일 정진을 마치시고 대성사는 종지종(總指宗)의 요람처(搖籃處)인 시내 동대문구 상봉동으로 8월 21일 이거(移居)하였다.

대성사께서 상봉동(上鳳洞)으로 이거(移居)하자 스승과 교도 대다수 종조님을 따라 나오고, 경계(經軌)의 비밀전수(秘法傳授)를 긴장하므로 대성사는 상봉동 391번지의 5호에 총본산(總本山)인 서울선교부를 개설하고 비밀의궤(秘密儀軌)를 전수하기 시작했다.

원정 대성사께서 서울선교부에서 임자년(壬子年, 1972) 8월27일부터 교화를 하시자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입교개종할 것을 요청하였다. 종조님은 이를 받아들여 그 해 12월24일 서울선교부에서 개종불사(開宗佛事) 및 창교식(創教式)을 거행하기로 결정하고, 종명(宗名)을 종지종(總指宗)으로 결정했다. 종지(總指)라는 뜻은 종지 즉 다리니(總指龍蛇羅尼)로써 진언행자(眞言行者)와 모든 중생을 지도한다는 뜻이다. 이로써 개종기원(開宗紀元)이 총기원년(總紀元年)이 되었다.

창종 이전의 역사는 창종을 위한 준비와 교상획립에 있었다. 창종 당시의 상황은 여려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 초창기 가림을 갖추지 못하고 건물을 임차하여 불법(佛法)을 펼쳐야만 했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교도들이 구름처럼 물려 들었고 교세는 요원(煥原)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이후 원정 대성사는 정통밀교의 교상

과 사상의 정립을 주창하시고 삼밀의궤(三密儀軌)와 사종수법(四種修法) 및 진호국가법(鎮護國家法)을 선포하였다.

대성사는 창종인 그해 1972년 9월9일 '비밀의궤법'을 정하여 선포하였다. 현밀원통성불심요집(顯密圓通成佛心要集)과 함께 밀교심요(密教心要)의 사종수법(四種修法)을 발췌하여 한글로 번역배포하였던 것이다. 또한 동월 29일, 중생제도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교도가정의 제례(祭禮)에 사용할 '왕생막'(往生幕)과 '법등'(法燈)을 고안 제작하였고, 종지종 교의(敎義)의 상징이자 종지(宗旨)를 표시하는 '육합상'(六合相)을 창안하였다. 중앙의 원은 불교의 진리인 무시무종(無始無終)의 뜻이고, 또 이 우주의 운행(運行)도 모두 원으로 운행되며 법신 비로자나가 곧 원이라는 뜻이고, 만다라(曼茶羅)를 운원구족(輪圓具足)으로 표현하며 대일여래(大日如來)는 곧 태양을 의미하므로 원에서 광명을 발사하는 뜻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외곽의 6엽(六葉)은 불교의 교화인 연화(蓮花)를 표시하는 동시에 6자대명(六字大明), 유파리밀(六波羅密), 유풍(六合, 東西南北上下), 유클(六道), 유큰(六根), 유흥(六境), 유풍(六識), 유태(六大), 유편(六般), 유풍(六觀音)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육자진언(六字真言) 중 미니는 원(圓)이요, 반메는 언화(蓮花)며, 원은 남성이요, 연화는 여성이다. 즉 남녀상교(男女相交)·음양원용(陰陽圓融)의 뜻이며 원은 물질(과학)이요, 연화는 심성(종교)이라 물심불이(物心不二)의 뜻이며, 원은 현실이요 연화는 진리라 당상즉도 즉사이진·색심불이·번뇌 즉 보리(當相即道即事而眞·色心不二·煩惱即菩提)의 뜻임을 선포하였다.

특히 10월에는 '준제관음상'(準提觀音像)과 '현도만다라'(現圖曼茶羅)를 책내코자 노력하였으나 어렵게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종조께서 창종원년에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바로 역경편찬사업이었다. 즉 종단의 소의경전(所依經典)인 『대승장암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 전4권과 『대승이취유바리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密多經)』 전10권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었으나 지금의 『밀교장경』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또한 현밀(顯密)의 경전에서 유독 별로 발췌·번역하여 『불교총전(佛教總典)』이라는 제명(題名)으로 총지종의 교전(敎典)을 종조께서 직접 집필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총지종의 신앙대상인 본존과 불사의식·법의(法衣)·금가사(襟袈裟)·육자본존을 조성하고 제정·발표하면서 밀교종의 창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셨다. 충정으로 도량에서 스승과 교도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종조님은



밀교중흥의 대서원으로 이 땅에 오신 인연이었으라!

창종의 이념과 수행정신을 되새기며,

종조님의 가르침과 유훈을 길이 받들고 수행해나가야...

사종수법(四種修法)에 맞춘다.』는 것이었다. 창종을 앞두고 법회를 위한 도량도 마련하였다. 현재 사원의 전신(前身)인 '선교부'(宣教部)를 전국 각지에 여럿 개설하시고, 드디어 1972년 12월 24일 불(敎)법(法)승(僧)을 갖춘 수승한 교단의 면모로써 밀교종의 창종을 이루셨다.

종조님은 교상과 사상획립을 위해 직접 수행을 통하여 체득하신 후 정진의 결과로써 체득·정립해나가셨다. 서울선교부를 총지종의 총본산으로 결정하고, 불사를 계속하자 국내도처에서는 육자만다라(六字曼茶羅)에 귀명(歸命)하여 설단봉안(設壇奉安)하는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종조님은 교의(敎義)를 선포하시기를 법신(法身) 대일여래(大日如來)를 교주(敎主)로 하고, 육자대명(六字

大明)을 본존(本尊)으로 하여 『대승장암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과 『대승이취유바리밀다경(大乘理趣六波羅密多經)』을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하였다. 또한 태·금(胎金) 양계(兩界)의 모든 경궤(經軌)를 보조경전으로 하여 삼밀(三密)과 유행(六行)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고, 「당상즉도 색심불이(當相即道 色心不二)」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쌍수(福智雙修)로 사리(事理)를 구현하므로써 혜세정화와 혜신성불의 운원대도(輪圓大道)를 얻게하였

「부처님의 가지력(加持力)에 일심귀명(一心歸命)하고 2세의 신심(信心)을 결정하겠습니다.」「사은십선(四恩十善)의 가르침을 받들어 육행(六行)을 실천하겠습니다.」「인과응보의 진리를 굳게 믿고 이단사설(異端邪說)에 미혹되지 않겠습니다.」「화합과 단결로써 국가사회에 혼신봉사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교법(敎法)과 회칙에 절대복종하고 정법(正法)과 정의를 세워 혜세정화에 전진하여 국가와 종단의 발전에 혼신하겠습니다.」「부처님의 화타정신(化他精神)을 본받아 5세대 제도의 의무를 꼭 이행하겠습니다.」「이렇듯 1973년은 모든 체계를 갖추어 나갔던 한 해였고, 종단 내외의 교세확장을 시도했던 한 해였다.

그 다음해인 1974년부터 1978년까지의 5년간은 종단의 종제(宗制)를 더욱 확립시켰던 시기였다. 종단의 각종 기구와 직제를 구성하고 승단의 강공회(講工會)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보은사법'(報恩施法)의 실시, 재단법인 설립, 자성일 대중동참불사법과 전액불사법 등을 제정하고 오대서원과 회향문을 작곡하여 공식 시간과 기타 의식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학생회 결성, 회사금 월말보고제도 실시, 보은심고법(報恩心告法) 실시, 전교·시교(傳敎試敎)제도를 실시하였다. 보은심고법(報恩心告法)의 실시는 은혜깊은 불제자로서의 수행을 역설하신 것이다. 매식사전 또는 환의식(換衣식) 다음의 말은 스승과 교도(敎徒)가 마음 속으로 고하도록 한 것이다.「부모님이 이 몸을 생육(生育)하시고, 부처님이 모든 것 내게 주시니 세세생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특히 대성사께서는 그해 1974년 1월 21일(월요일)부터 27일까지 1주간 철야정진을 실시하였다. 종단도록과 재단설립허가를 위하여 대서원 정진을 하셨던 것이다. 종

단운영과 회계인사 등 종무일체를 투명하게 하고 오직 불법홍포와 정재수호를 위한 뜻이 담겨 있다. 대성사의 공명정대한 자세와 혜정수행의 정신을 염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75년에는 진호국가불사의궤 제정, 망자(亡者)에 대한 천도관정법(薦度勸頂法) 실시, 불교총전 초판 발행, 승직법제정, 선교부의 명칭변경, 반포법시법 시행, 각 사원 서원당에 자성학교(自性學校) 개설, 정법사법(正法施法) 시행, 투명단증법(授名壇中法) 시행, 법장원 개원, 친불가 제작을 완료하였다.

진호국가불사의궤는 수호국계주경법(守護國界主經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것으로 스승과 교도가 다 함께 5월5일 월요일부터 1주간 국가안보를 위하여 정진

기로 했다. 지금의 상하반기 진호국가불공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천도관정법은 망자의 멸죄왕생(滅罪往生)을 위하여 불공견색비로자나불대관정광진언(不空羈索毘盧遮那佛大瞿頂光真言)과 오색광인(五色光明)을 행하는 관정의궤(瞿頂儀軌)였다.

또한, 『대승장암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 제4권 중 작법법(作壇法)에 의거하여 권속의 이름을 단종에 투임하면 공덕이 무량하므로 그 서원에 따라 식재(白色종이)·증익(黃色종이)·경애(紅色종이) 등으로 구분하여 교도들이 재시(財施)를 행하는 투명단증법(投名壇中法)의 실시는 회시법의 틀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1976년에는 망자관정 5색광인의 결인 결정, 성불서원 확립, 관음공덕수집, 화도의궤(化導儀軌)를 제정하였다. 특히 당시 선교부라는 명칭은 불교색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선교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어 종조님은 재단소유건물은 "總指宗 〇〇寺"로 하고, 전세로 교화하는 곳은 "總指宗 〇〇誓願堂"으로 사원명칭을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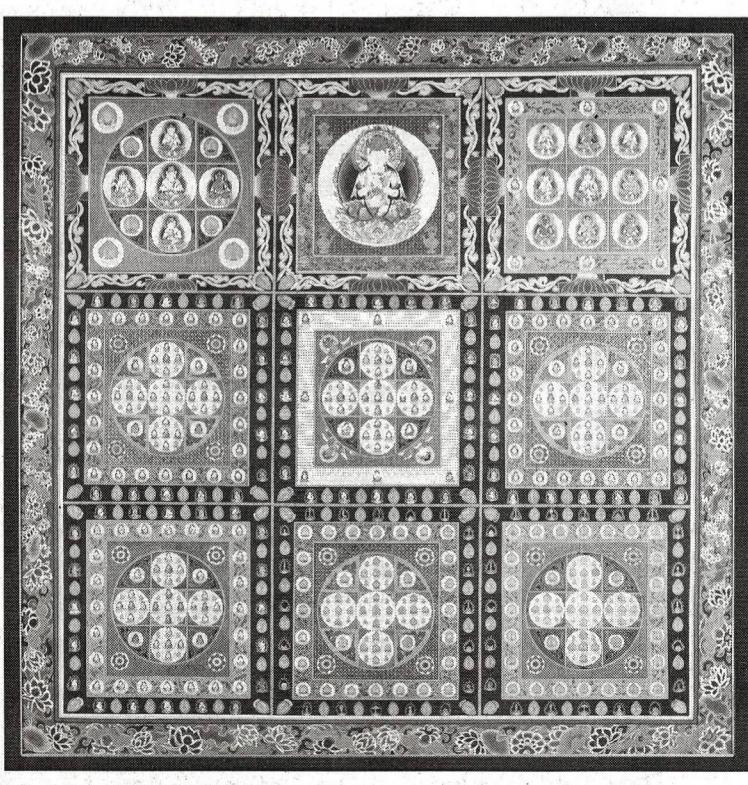
1977년에는 총본산 건설, 신축사원 건물 옥상에 법신불(法身佛)의 상징인 입체원상(立體圓相) 건립, 밀교장경 초판 발행, 성불탑을 건립하였고, 78년에는 성도절(成道節) 양력(陽曆) 실시, 합장례 인사법 결정, 공덕성취 십선성취법 헌책, 공식시간 불사의궤 통일, 법의(法衣) 착용법 개정, 삼종(三種) 불사식 순결, 가사봉대(袈裟奉戴) 및 행위승서식(行位升昇敎式) 거행, 현대화·생활화를 위한 4종수법의 혁신, 수륙대재(水陸大齋) 행사실시, 흑백두 수행법(黑白豆 修行法) 실시, 단일정진(單一精進)과 복수정진법(複數精進法)을 제정하였다. 1979년에는 총지대학 건설기금 조성, 각종 진연결인법 헌책, 1979년에는 총지대학 건설기금 조성, 각종 진연결인법 헌책, 1980년에 접어들면서 원정 대성사께서는 사종비법(四種秘密法)의 창안, 5세대 제도법(五世帶濟度法) 시행 등으로 더욱 교상과 사상을 체계화하고 교화방편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스승의 인사이동과 신규 스승임명을 통하여 활발한 교회활동이 가능케 하였다. 즉 제도와 의궤의 정비 이후 본격적으로 인재양성에 주안점을 두셨던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창종 8년이 되던 해인 1980년 9월8일 원정 대성사께서 종단발전의 무수한 불사들을 남겨 두신 채 안면(安眠)의 열반에 드시고 말았다. 창종역사와 종조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종조님께서 이 종단을 위해서 얼마나 정진하시고 노력하셨는지를 읽게 된다. 이에 종조님의 탄신 97주년을 맞는 총지종의 승단 스승님과 교도들은 그 분의 가르침과 유훈을 길이 받아들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대성사의 탄신을 봉축하는 길이리라.

(자료정리 법장원)

만다라를 친견합시다!

밀교의 만다라는 사방삼세제불께서 한 자리에 계시는 부처님의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또한 중생구경의 경지요 즉신성불의 가르침인 양부만다라(태장계, 금강계)를 모든 불자들은 친견합시다.

"만다라를 친견하면 다생겁동안 지은바 모든 죄업이 소멸하고 남음이 없느니라" (대일경)고 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친견하고 예경합시다.



금강계 만다라



태장계 만다라

현목의 세상일기



서울시청 광장에 얹힌 기억

지금부터 37년전, 그러니까 196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록 오래 된 일이지만 내가 직접 겪은 일이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나는 서울 을지로6가에 있는 동대문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 흔적도 없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는 대형의류도매상기가 들어섰습니다. 혹 아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동대문운동장 맞은 편에 덕수상고가 있었고 그 뒤편, 예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쪽으로 있는 일본식 민지 시절에 자라진 학교가 있는데 바로 그 학교입니다. 운동장 한켠에 노천수영장이 있었고 운동장 동쪽으로는 상당히 오래 묵은 고목 두그루가 버티고 있었지요. 하지만 70년대 들어 서울의 사대 문안에 있는 학교들이 그렇듯이 내 모교도 학생들이 없어 마침내 폐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3학년때는 4학년때였던가, 어쨌든 그 무렵부터 구로동에서 을지로까지 통학을 했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그때 그리 많은 편도 아니었던 시내버스 또는

전차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통학을 한 사연이 있지요.

뭔고하니, 61년 5월 박정희를 비롯한 일단의 일본군 출신의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서울의 변두리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런 일련의 정치적 배려로 을지로에서 살던 우리는 구로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63년쯤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사를 가서도 그냥 동대문국민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웬지 낯선 동네의 낯선 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고생이 되더라도 먼거리 통학을 하는게 낫겠다 싶어 내가 우긴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다니던 중, 바로 66년 봄이던가 가을이던가 미국 대통령 존슨이 이 남한에 왔습니다. 64년,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개입하였고 남한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그 더러운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내 큰형님도 그 바람에 청룡부대 1진으로 65년 여름,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애매한 전쟁에 이 땅의 고귀한 젊은 청년들의 목숨을 바치는 상황에서 존슨이 서울에 왔고 그가 오던 날 서울에는 비상경계가 내려졌지요. 내 기억으로는 그 날 학교도 이르게 파행했던 것 같습니다.

일찍 파한 영문도 모르고 집에 가느라고 버스를 기다렸는데 좀체 오질 않더군요. 아무리 기다려도 차가 오지 않아 길 가던 어쁜한테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그 날 시청 앞 광장에서 존슨 환영대회를 하느라고 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을지로6가에서 구로동 집으로 가려면 필히 시청을 통과해야하는데, 시청을 중심으로 시방이 막혔다니, 이제 어떻게 집에 가나? 하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별 수 있나요. 그 조그만 놈의 머리에 떠오르는 봉책이란 것이 그저 걷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여 터벅터벅 무작정 걸었습니다.

다. 을지로를 지나 시청에 이르자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손에 성조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구요. 관제동원이었는지 아니면 자발적인 동참인지 광장은 사람들로 메어졌습니다. 그렇게 모인 술한 인파를 간신히 뚫고 남대문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날, 벌써 37년이나 된 내 기억의 저 아득한 그날, 나는 어찌어찌 용산인가 노랑진에서 범벅된 영동포역까지 가는 마지막 전차를 탈 수 있었고, 통행금지가 철저하던 그 시절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내 작은 형님은 사정도 묻지 않고 그냥 밥풀만한 오밥중에 들어왔다고 뒤지게 혼만 내더군요. 억울하긴 했지만 어찌 설명을 해야 할지, 영 떠오르지 않아 일단 옥만 바가지로 먹고, 쫄쫄 주린 배를 잡고 거의 죽다시피 잠에 떨어진 기억만 납니다. 존슨 덕분이었지요.

서울시청 광장에 얹힌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새롭게 떠오른 까닭은 며칠 전 바로 그 시청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성조기를 들고 모여 무슨 구국기도회라는 것을 벌인 모습을 텔레비전 새소식 시간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 의정부에서 미군의 장갑차에 어린 두 소녀가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미국을 규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에 없이 높아가자 개신교의 연합단체가 주관한 집회였습니다. 나라를 걱정한다는 기도회에 미국 국기가 나부끼고 있다는 사실을 나로서는 좀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서양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짓이 아닙니까? 그렇게 미국에게 잘 보여야 할 시연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군요. 뭐라고요? 미군이 이 남한 땅에 주둔하고 있는 덕분에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새로 대통령 될 사람도 기어이 한마디 하더군요,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하기를 바란다.” 무지의 소지인자 아니면 너무 유식해서 그런지 통 이해가 안됩니다.

지난해 초여름 내내 서울시청 광장에 ‘대한민국’이 울려 퍼졌지요. 나는 그 ‘대한민국’이라고 외쳐되는 젊은 청년들의 의식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외쳐대는 조국의 이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하는 걱정입니다. 굳게 믿건대, 역사와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청년들이라면 고작 반쪽짜리 조국에 대한 자긍심에 눈이 멀어 환호하고 걱정의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1987년 7월 10일, 신촌의 연세대를 출발한 대열이 시청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그 군중의 일부가 시청 옥상에 이한열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기를 걸었습니다. 대열의 곳곳에서 진정한 민중의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어 열사의 뜻을 바로 세우자는 구호가 광장을 울렸지요.

간절히 바라건대 87년 여름, 그 광장에 울렸던 구호가 현실로 실현되어 내 어릴 적의 쓰린 기억이 사라지고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별 수 있나요. 그 조그만 놈의 머리에 떠오르는 봉책이란 것이 그저 걷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여 터벅터벅 무작정 걸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너가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미국을 규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에 없이 높아가자 개신교의 연합단체가 주관한 집회였습니다. 나라를 걱정한다는 기도회에 미국 국기가 나부끼고 있다는 사실을 나로서는 좀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서양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짓이 아닙니까? 그렇게 미국에게 잘 보여야 할 시연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군요. 뭐라고요? 미군이 이 남한 땅에 주둔하고 있는 덕분에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새로 대통령 될 사람도 기어이 한마디 하더군요,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하기를 바란다.” 무지의 소지인자 아니면 너무 유식해서 그런지 통 이해가 안됩니다.

지난해 초여름 내내 서울시청 광장에 ‘대한민국’이 울려 퍼졌지요. 나는 그 ‘대한민국’이라고 외쳐되는 젊은 청년들의 의식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외쳐대는 조국의 이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하는 걱정입니다. 굳게 믿건대, 역사와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청년들이라면 고작 반쪽짜리 조국에 대한 자긍심에 눈이 멀어 환호하고 걱정의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1987년 7월 10일, 신촌의 연세대를 출발한 대열이 시청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그 군중의 일부가 시청 옥상에 이한열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기를 걸었습니다. 대열의 곳곳에서 진정한 민중의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어 열사의 뜻을 바로 세우자는 구호가 광장을 울렸지요.

간절히 바라건대 87년 여름, 그 광장에 울렸던 구호가 현실로 실현되어 내 어릴 적의 쓰린 기억이 사라지고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별 수 있나요. 그 조그만 놈의 머리에 떠오르는 봉책이란 것이 그저 걷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여 터벅터벅 무작정 걸었습니다.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제15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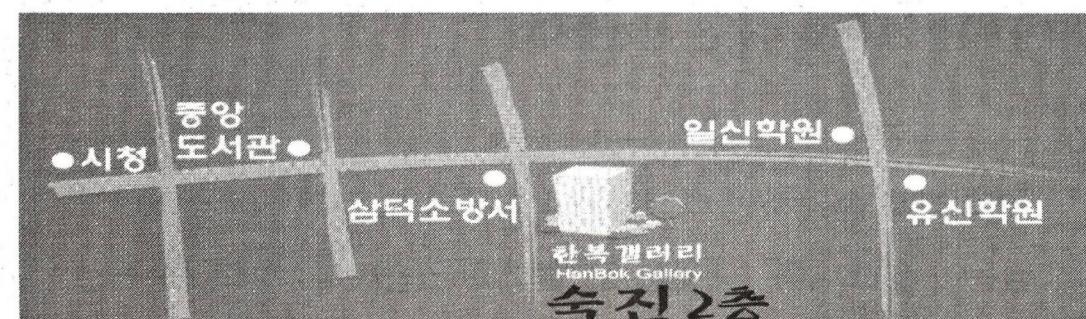
한복갤러리 숙진

HanBok Gallery
www.sookjin.com

다양한 색감과 디자인을 겸비한 숙진한복이

지역 신랑·신부한복을 선도합니다.

지역에서 접해보지 못한 아름다운 작품한복으로
예비신랑·신부님들에게 한차원 높은 결혼을 보장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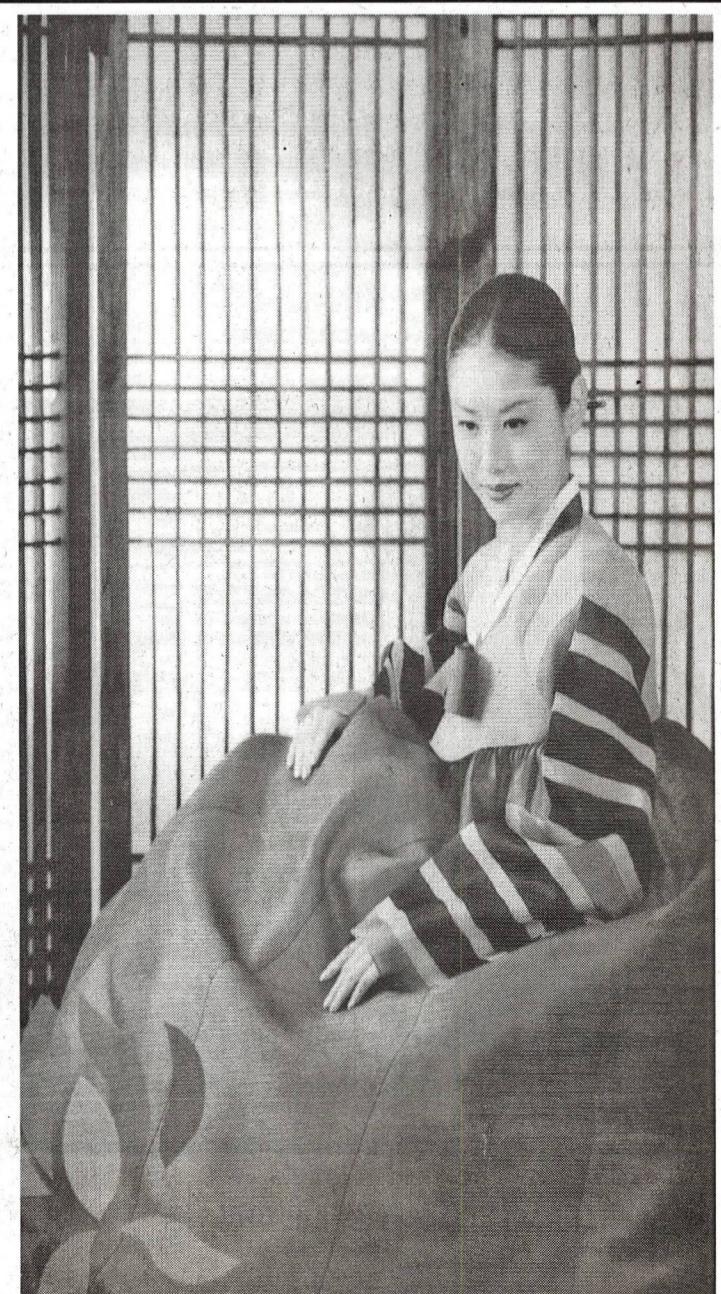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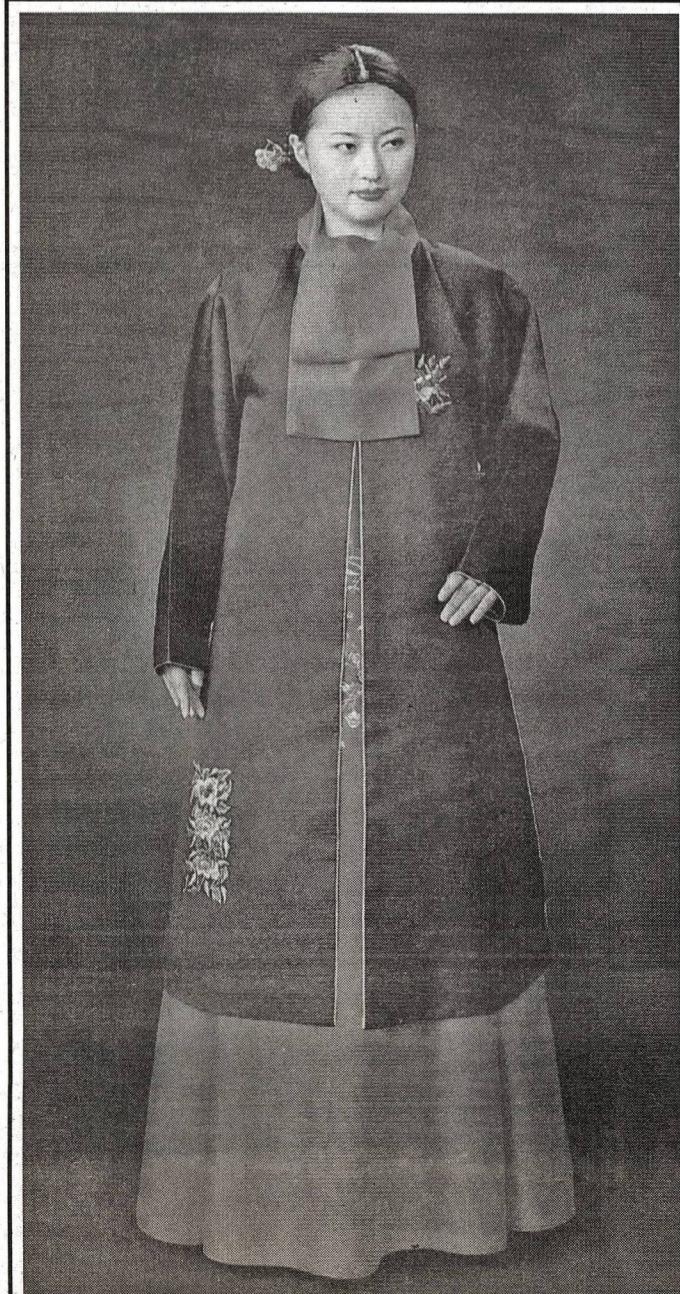


※삼덕 소방서에서 일신학원 방향으로 약 30미터 올라오시면 2층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1가 55-7

TEL: 053-257-4289 FAX: 053-256-0859

디자인실 : 053-253-9294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신년하례법회 참석

불교문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갖겠다



대해 각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진각종 부 국장급 인사 단행

진각종 원의회는 지난 12월27일 통리원과 교육원, 진각대 부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원의회는 통리원 문화사회부장 회성성장사(불정심인당 주교), 포교부장 무의 대정사(무애심인당 주교),

교육원교법부장 지정 대정사(명선 심인당 주교), 교육부장 덕정 정사(법륜심인당 주교), 진각대학 교무처장(경당 정사(관행심인당 주교))를 내정하였다.

또한 각 국장급 인사는 총무국장 현수 정사(득도심인당 주교) 기획국장 호당정사(실상심인당 주교) 전산국장 경일정사(최정심인당 주교)를 내정하였다.

불교TV 금융권부채 완전해결

정상경영과 방송의 질 향상에 주력

불교텔레비전(b수 사장 이수덕)이 지난 8일자로 금융권 부채를 모두 갚아 경영이 정상화 됐다. 불교텔레비전은 이날 국민은행에 남은 부채 7천만원을 갚아 120여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모두 해결하였다.

금융권부채를 모두 해결하여 현재 전파사용료 20여억원이 남아있으나 매월 금융권에 5천만원에 이르

던 원금과 이자비용을 해결함에 따라 KT측에 지불해야 할 전파사용료가 2천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경영이 한결 수원해졌다. 이에 따라 b수 dms 프로그램 제작비를 높이는 등 방송의 질 향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수덕 사장은 "금융권부채를 해

결할 수 있었던 것은 성우스님의 전

으로 일어난 청탁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관련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리를 두고 모든 종교가 존중할 것이며 행정 일이 있으면 다 함께 행기겠다"며 종교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민주당 불자 의원 모임인 연등회의 신년하례법회에서 불교계 최대현안인 북한산 관통도로, 불교문화, 종교정책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노 당선자는 북한산관통도로 문제에 대해 "국토에 서린 민족정기, 환경, 불교 수행환경, 국민편의등 불교계의 현안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하였

인터넷 포교방송 20일 오픈



불교전문 인터넷 포교방송 봇다TV(www.buddhatv.com)가 20일 문을 연다.

불교초심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봇다TV는 설법과 포교, 문화, 교육등 설법채널, 포교채널, 문화채널, 교육채널의 4채널을 갖추고 있다.

설법채널에서는 전국 각지의 사

다.

노 당선자는 또 "앞으로 문화의 중심인 불교문화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훼손되지 않고 더욱 더 빛날 수 있도록 행기겠다"며 "그리하면 불교계도 좋아하고 모든 국민이 잘 하는 일이라 칭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관련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리를 두고 모든 종교가 존중할 것이며 행정 일이 있으면 다 함께 행기겠다"며 종교계에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사퇴

권한대행에 선용스님 선출

정대스님이 지난 15일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총무원장직에서 공식 사퇴하였다.

정대스님은 기자회견에서 "동국학원 이사장취임과 동시에 총무원장직을 시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후임 총무원장의 공식적인 선거일정이 동안기 기간과 중복되는 것은 수행종

단의 면모에 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를 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지만 일부 스님들이 사퇴를 요구함에 따라 더 큰 혼란을 초래할것이 염려되어 즉각 사퇴한다고 밝혔다.

총무원법 제 10조에 의거, 새 총무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권한대행은 선용스님이 맡게 됐다.

참여복지 실천으로 종단위상 드높인다

미아찾아주기 사업 본격 시동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전태종복지재단(대표이사 전운덕, 총무원장)이 추진하는 미아찾기 운동이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복지재단은 매년 수천명의 미아가 발생하고 이로인한 가정이 훨씬 많은 불사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문화채널에서는 음악, 영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며 교육채널에서는 초심자와 중급자를 위한 불교강좌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태종 전국 말사의 사보(寺報)와 전태종보, 월간금강,

복지재단 회보 '자비손', 종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금년 1월말부터 시작돼 거종단적인 운동 형태를 띠고 있다.

복지재단은 운동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명 연예인 및 운동선수를 미

아찾아주기 사업 홍보위원으로 위

촉하고, 사회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

하여 미아찾아주기에 더한층 사회

적 관심을 유발하며, 나아가 미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최종목표라고 밝혔다.

틱낫한 스님 3월 방문

다보수련원서 명상프로그램

체험행사 예정

〈화〉〈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등 국내 도서계에 '틱낫한 바람'을 불고 온 주인공 틱낫한 스님이 오는 3월19일부터 4월2일까지 방한한다.

대한불교진흥원과 명진출판사 공동초청으로 한국에 오는 스님은 방한기간 중 서울, 부산, 계룡대 등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평화에 대한 강연회와 충북 고산 다보수련원에서 텁풀스테이 형식으로 명상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출신으로 현재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에서 '불법빌리지'라는 명상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대체로 사람 이 마흔 살이 넘어서 기운이 쇠약할 때에 지나치게 근심하거나 기뻐하거나 성을 내어 기가 상하면 중풍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중풍은 기운이 쇠약할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이 잘 생기는 위험 인자로는 고령, 스트레스, 체질, 성격, 담배, 술, 기름기 음식 등 사회적 인자와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의 과거병력 등 질병적 인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

조선화원장의 총지 동의 보감

중풍이란?



한 중풍은 11월에서 3월 사이의 추운 겨울에 빈번하게 발생하며, 평소에 기를 고르게 조화시켜 순환을 순조롭게 하는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흔히 양방에서는 뇌졸증(腦卒中)을 말하며,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부족하여 국소 뇌 조직 대사에 이상을 일으켜 뇌의 부분적인 기능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뇌의 이상 부위에 의해 조절되는 신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보행장애, 기억상실 등이 초래되는 것으로 가장 흔한 사망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중풍은 원래 갑작스럽게 발생하지만, 수일 전부터 전조증상을

열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현상

氣순환, 조화중요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중풍의 소인이 있는 사람이 아래의 증상을 보이면 전문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발에 힘이 없어지거나 저리다. ▶말이 어둔해진다. ▶메스꺼우며 어지럽다. ▶물체가 들로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진다. ▶이유없이 머리가 아프다. ▶잠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온다. ▶얼굴의 반쪽이 미비감이 있다. ▶얼굴에 자주 상열감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한증으로 인한 혼수상태에 따른 증세 중에 코를 쉴 새 없이 골리는 폐(肺)기능이, 눈을 뜨고 감자 못할 때는 간(肝)기능이, 입을 다물지 못할 때는 심(心)기능이, 손을 꽉 펴고 있을 때는 비(脾)기능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는 신(腎)기능이 각기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극히 위험한 조짐으로 보며, 이런 증세의 심도와 빈도에 따라 치료의 여부, 생사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원인들에 의해 발병되는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철천해야 합니다.

▶가족력이나 '중풍의 소인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 치료 및 관리를 한다. ▶식사를 일정하게 한다. ▶군것질, 기호식품을 삼킨다. ▶체식이나 식물성 지방 섭취를 늘린다. ▶염분이나 당분섭취를 줄인다. ▶가벼운 운동을 생활화 한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피한다. ▶술과 담배를 끊는다.

요즘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여러분 주위에서도 심심찮게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이러한 중풍은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방법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더욱 신경쓰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 美 한의원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간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증, 질염, 냉증, 대하증, 불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임도), 임신증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작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진료시간

평일 9:30~오후 6:30

주말 9:30~오후 4:00

점심시간 : 오후 1:00~오후 2:00

초음파



온열진기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의 상담"

한남대교

신사역3번출구

신한은행빌딩

도산대로

30M 20M 1분거리

STARBUCKS

지하철출구

20M 1분거리

여성미한의원

30M 20M 1분거리

한남역

좌훈육기



자경단(子經丹)

중양질환
자궁근증
생리질환
불임 자궁근증체계

생활액분석기

자동팔강진단기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부처님에 대한 신심과 구도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르고

진언수행의 오랜 전통의 맥이 이어져 서원성취 이루는 사원

부처란 깨달음이니, 마음을 보고 마음인줄 깨달은 것이 부처이며,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중생이다.

부처는 허물이 없거늘, 중생이 전도하여 자심(自心)이 부처인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심(自心)이 부처를 찾지 않는 것이다. 불성은 스스로 있는 것이다. 스승을 인(因)하지 않으면 마침내 밝게 요달하지 못하나니, 만일 깨달아 알지 못하거든 급히 선지식을 찾아 힘써 참구해야 한다.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요 성품을 보지 못하면 종생이다. 중생을 여의고 따로 불성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지금 어느곳에 있는가. 중생성(衆生性)이 곧 불성인 것이다.

부처에 있어서 더하지 않고 종생에 있어서 덜하지 않는 똑같은 마음이나, 부처님은 그 마음을 믿고, 종생은 그 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니, 믿고 믿지 않는 것이 다를 뿐이요 부처와 종생은 둘이 아닌 것이다.



“부처님이 이곳 유서 깊은 관성사에 보내심은 더욱

정진하여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라는 큰 뜻으로 이곳 낯선 곳 까지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성사가 어떠한 곳인가? 큰 스승이었던 복지화 스승님과 기로스승인 경관스승님의 숨결과 손때가 곳곳에 배인 곳이 아닌가!

큰스승님의 뜻에 어긋남 없이 수행에 전념해야 하는데, 앞선 선배스승님을 생각하면 한없이 아파지는 모습을 보며 해정스승님과 정법계스승님은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불잡는다.

어느덧 아침 해는 솟아오르고 긴 새벽불공을 훔자오인으로 마친다.

본 성품, 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고 한다.

모든 중생이 진언의 공덕을 생각하며

아침 공양과 사원주위를 청소하다 보면 다시 오전 불공이다.

새벽불공에도 교도들이 한 둘 참여 하였지만 오전불공에는 제법 교도들이 모였다. 교도들 사이에 가족들의 모습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띤다.

관성사 이타심 회장보살님 와 “관성사에 다니는 교도들은 모두 남편과 가족들을 제도하고 심지어 출가한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들 까지 제도를 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습니다.”고 자랑을 한다.

고 며칠이 지나고 새벽에 공양간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전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유난히 추운 겨울에 공양간의 낡은 미닫이문이 얼어 잘 열리지

않아 힘을 쓰면서 전수님이 실천서원인 ‘인욕과 하심으로...’를 외우면서 문을 열려고 힘을 쓰는 모습

을 보며 얼마나 웃음이 나았던지”하며 과거의 시절을 회상하듯 시작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정각사, 지인사, 자석사, 삼밀사등 많은 사원을 신축하였지만 정작 스승님이 기거할 사원은 낡아 교도들에게 명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원을



다는가 미워한다든가 하지를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 비단 사제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에서는 선배와 후배, 가정에서는 남편과 부인, 아버지와 자식, 늙은이와 젊은이의 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참회로 새로운 날을 준비한다

겨울의 하루에는 무척 짙다. 스승님의 저녁불공은 참회가 주축이 된다. 물론 모든 불공의 시작은 참회에서 시작되지만 저녁불공에서는 하루의 일과를 반성하고 참회하며 새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해정사님과 정법계전수님은 말씀하신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면 내 업장만 녹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업장을 녹여준다. 참회와 말로 민인을 편안케 해주고 수행을 완성케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참회는 하심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음공부하는 사람을 하심을 해야 합니다. 내몸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존경하다 보면 자신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해정사님, 정법계전수님의 말씀에 한없는 자애(慈愛)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가슴 가득 담아서 돌아왔다.

주소 : 서울 종로구 행촌동 210-655
전화 : 02)736-0950



약 도

금화터널

●독립문

평촌의원 ●

●독립문
초등학교

무 약
재

주시는 걸까? 수은주는 영하 20도로 내려가고 지금 까지 느껴보지 못한 매서운 칼바람과 추위가 서원당 문틈을 타고 황소바람처럼 밀려 들어와 새벽정송의 자세를 여미게 만든다.

벌써 20여년을 한결같이 사분정진속에 마음 닦는 진언수행을 하는데 그놈의 마음은 가물가물 한 것이 진언 수행의 멀고 험한 길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오늘 하루도 작은 서원당에 몸을 의지하고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에 육신을 던져 새벽정송으로 마음에 남아있는 탐·진·치(貪·嗔·癡)의 잔상을 닦으며 아침의 여명을 맞이한다.

마음닦는 것은 무엇인가. 스승님은 “이 세계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그렇지 못한 자, 과학자, 종교가, 철학자등 일체 중생이 누구나 다業報 중생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견해도 역시 업인(業眼)으로 밖에는 보자를 못함 또한 사실이고, 우리 일체 중생이 이 업인(業眼)을 해탈하여 진리의 심안(心眼)으로 세상을 보고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진리의 법안(法眼)을 만들려면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는 심성수양(心性修養)이 필요하지요.

이상하고 묘하게도 성품은 각자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도 중생의 탁한 육안으로는 성품을 보지 못하고 고해(告解)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부 중생은 탑내는 마음, 성고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재물에 대한 욕심, 색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오래 살고자 하는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가득한 병에 걸린 환자들이다.

바른 성품을 보고자 하면 탐·진·치(貪·嗔·癡)삼독과 오욕락(五慾樂)을 버리고 유파라밀을 행해야 한다. 그러면부터 꾸물한 날씨가 급기야는 하얀 눈이 되어 흘날린다.

관성사는 사랑방의 냄새가 나는 곳이다. 늘 스승과 교도가 허물없이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

완공하고 나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들게 되어 마음이 상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실천서원인 인욕과 하심으로 진애심과 원망심을 없애고... 하는 문구가 없었다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다”며 “옛날 법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법을 교조적으로 해석하고 교조화 시키면 그 법은 사장된 법입니다. 법의 기본 정신은 바꾸지 않고 시대와 사람의 변화에 맞는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대와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법은 법의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시내 속도가 평균 60km라 하자. 세월이 흘러 생활이 운행해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서 자동차 수가 늘어서나 60km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 그 법을 고수한다고 하면 도로는 엄청 일이 될 것입니다.

40km, 30km로 규정속도를 줄여서 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며 종단의 종헌 종법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종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이 있으면 나이든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사람과 생각을 화합과 조화로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조화와 화합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스승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승을 보았을 때는 결에서 섬기고 보지 못

